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애착과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효과-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현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애착과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현

인 준 서

이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82명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척도(academic stress Scale),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 SSI), 부모 및 또래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 IPPA-R), 부적응적 사고척도(Maladaptive Thought Scale : MTS-A)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 및 인지왜곡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을 알아본 결과, 공부관련 스트레스, 가족관계관련 스트레스, 친구관계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공부관련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학업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미치는 중재효과를 알아본 결과 이들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애착과 인지왜곡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왜곡을 내면화-외현화문제 관련 인지왜곡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한 결과 이들 모두 청

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보다 자살생각을 매개하는데 7배 이상 더 큰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높이는 관계적 접근과, 왜곡된 인지를 수정해주는 인지적 접근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 보다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 한 바,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수정할 수 있는 상담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 매개효과 및 증재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7
2.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 9
3. 애착과 청소년의 자살 12
4. 인지왜곡과 청소년의 자살 15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18
2. 연구대상 19
3. 측정도구
 - 1) 학업스트레스 22
 - 2) 자살생각 23
 - 3)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24
 - 4) 인지왜곡 24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26

I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27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8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29

 1) 부모애착의 중재효과 29

 2) 또래애착의 중재효과 30

 3)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31

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2

 1)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33

 2)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4

 ①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6

 ②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7

V. 논의

..... 3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구성내용	23
<표 3>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구성내용	25
<표 4>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상관관계	27
<표 5>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8
<표 6>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	30
<표 7>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중재효과	31
<표 8>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31
<표 9>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34
<표 10>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5
<표 11> 자살생각, 인지왜곡의 하위요인,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36
<표 12>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7
<표 13>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38

그림 목 차

<그림 1>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모형	18
<그림 2>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매개모형	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국내에서 발생한 자살은 1만 2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3명, 약 44분에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06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주요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연보(2007)'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10~24세)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사망의 22.4%로, 1위인 교통사고(23.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의 사망 순위가 다른 연령 군에 비해 가장 높고, 그 비중이 꽤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업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임숙빈, 정철순, 2002),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학업문제(67%)와 진로문제(18%)가 약 80%이상을 차지했다(청소년백서, 2007). 이는 청소년이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들 중의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은 매 학기 학업수행을 평가받으며 성적이 그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성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성적하락이나 입시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라는 식의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에서의 도피라는 방법으로 자살이 시도되기도 하는데(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그만큼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위험성을 높일 만큼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승근, 200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살행동과 관련이 깊은 변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청소년은 자살을 시도하는 반면 어떤 청소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적 변인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과 위험요인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행해져 왔다(이경진, 조성호, 2004; 임숙빈 등, 2002; 하상훈, 2001; 김기환 등, 2000; 홍나미, 1998; 윤성림, 윤진, 1993; 박광배, 신민섭, 1990).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인들이 밝혀졌는데, 이 중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있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유대적 관계로(Bowlby, 1969), 유아와 부모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되고 유지된다(Ainsworth, 1982).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와의 애착 행동은 감소하지만,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은 그대로 지속된다(장휘숙, 1997). 그러므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장휘숙, 1997),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이정숙, 백지은, 2004; 이경남, 2003). 윤성림 등(1993)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애정부족 및 비지지적이고 공격적일 때, 자살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는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지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자살생각이 감소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애착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래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여기고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Freeman & Brown, 2000), 또래애착 역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완화해 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Parker & Aher, 1987, Hartup, 1983). 또한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자살충동과도 관련이 있다(손병덕, 2005)는 보고는, 또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역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인지왜곡이 있다. 인지왜곡은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 혹은 위협적인 상황을 지각할 때 정상적인 인지적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고의 오류가 발생되어 사고과정의 왜곡되거나 편향된 것을 의미하는데, 인지왜곡이 심할 경우에는 사건의 지각과 해석이 고도로 선택적이며, 경직되게 된다(Beck & Weishaar, 1989). 이러한 인지왜곡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촉매작용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사건인데(Rapoport, 1977; Sifnoes, 1960), 이 때 인지적 과정에서 사고의 편향과 인지왜곡을 갖는 청소년의 경우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고, 이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ck(1967)은 우울증의 정서적인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이 자살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였고, Baumeister(1991)는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반적인 인지 축소와 붕괴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학업스트레스 자체가 청소년의 자살시도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 대처 하느냐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

진다고 할 수 있다(오미향, 1993). 이처럼 인지왜곡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균형상태를 만들어 자살생각을 하게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전창오, 1996),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인지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인지 매개설의 입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역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소년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살을 결정하고 시도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일일이 제거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살관련 변인이나 위험요인을 찾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 한다(Haugaard, 2001). 자살생각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자살은 청소년 개인의 최종적인 선택에 의해 주도적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특성과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윤혜미, 남영옥, 2007).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밝힌 단순상관연구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살생각의 발생적 기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개입하는 기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중재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자살생각에 미치는 학업스트레스의 효

과가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상호 작용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suicide)은 본래 라틴어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sui’와 ‘죽인다’는 의미인 ‘caede’의 합성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¹⁾’라고 정의하였다. 자살의 개념은 의학적·법적·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은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자살행위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을 지닌 행동은 아니다.

청소년은 불안정한 과도기에 있는 매우 불안한 시기이므로,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절망, 상실, 분노 등의 복잡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갖기도 하고(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에 대해 자살이라는 현실 도피적, 충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자살은 삶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살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적인 욕구,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혹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Glaser, 1981).

자살을 하는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단계를 통해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순간 강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막연하고 수동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Reynolds(1988)는 자살행동을 4개의 하위차원(dimension)으로 구분하여 생각(ideation), 의도(intent),

1) 자살의도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

시도(attempt) 및 완료(completion)로 나누었다. 먼저 ‘자살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죽는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자살의도’는 유서 작성이나 소지품 처분, 사소한 자해적 행동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며, ‘자살시도(parasuicide)’는 자살생각과 달리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공공연한 위협, 자살행동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자살시도는 완전한 자살과는 달리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 매우 어렵지만 완전한 자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8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Cohen, Spirito & Brown, 1996). ‘자살완료’는 자신이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실제적인 자살을 의미한다. 결국 자살행동은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등 사고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자살생각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살시도로 구분할 수 있다(임영식, 오세진, 1999).

많은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있다고 가정하였고,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시도의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Wichstrom, 2000; Lewinsohn, Clarke, Rohde, Hops & Seeley, 1996).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고(Beck et al, 1979),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 이후에 더 심각한 생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Simon & Murphy, 1995), 자살시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이은숙, 2002).

자살관련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연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조사일 이전 단기간 동안의 자살시도 사례 수가 매우 적고,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 또한 쉽지 않다. 그

러므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로 자살시도 예측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살생각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가능성을 예측하고자 자기보고식 자살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살시도는 그 방법이 성공적이기만 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자살생각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유발요인에 대한 제거는 한계가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자살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한 개입방법을 위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학업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

학교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며,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과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생활은 열악한 물리적 환경,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경쟁, 잦은 시험, 공교육의 약화로 인한 사교육 열풍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성적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큰 척도가 되고 있고, 대학입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란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 때 그 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을 비롯한 근심, 불안, 갈등,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이다. 청소년의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정신적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오미향, 1993).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1998년의 57.1%에서 2005년에는 67.0%로 약 10%정도 증가 하였고, 청소년의 38.6%가 학업문제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학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청소년백서,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은영(1995)은 성적과 친구관련 문제가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임을 밝히고, 성적과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63.6%로 가장 높다고 했다. 또, 정두완(1997)은 부모의 성적 관련 꾸중, 과잉기대를 포함하는 성적 관련 스트레스가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원호택, 이민규(1987)는 청소년의 공부문제가 대인관계와 가정문제 보다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 그 밖의 연구결과들에서도 스트레스의 원인과 성,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부나 성적과 같은 학업문제가 가장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곽경미, 2007; 정은주, 2000; 이경희, 1995; 오미향, 1993; 황정규, 1990).

청소년에게 가장 주된 고민이 되고, 강력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학업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 2000). 첫 번째 유형은 성적저하로 인한 걱정이다. 특히 성적이 떨어지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심한 좌절감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서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학업문제는 시험불안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을 볼 때 불안을 느낀다. 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저하되어 공부한 내용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험불안은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성적 저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학업에 대한 동기도 높고,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학업능률의 저하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청소년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습관, 주의집중의 문제, 잘못된 공부습관 등 몇몇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청소년에게 공부에 대한 압력과 과외수업을 강요한다면 학업성적은 오르지 않게 되고 스스로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처럼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목과 등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굳어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성장 장애가 유발되기도 하고(권도원, 2001),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고 감수성도 예민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홍영수, 2004; 이경진 등, 2004). 더욱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붕괴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관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4년~1999년까지 학업스트레스가 실제 자살로 연결 되어 보도된 자살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입시의 중압감과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사례는 전체사례의 24%로 꽤 높았고, 수능성적결과 확인 후의 자살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전체 자살촉발사건의 10.6%나 되었다(김기환 등, 2000). 또 전주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47%가 성적 저하 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전주보건

소, 2003).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양승연, 2004; 장현지, 2004; 홍영수, 2004)를 통해 규명된 만큼 학업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애착과 청소년의 자살

애착(attachment)이란 사람 간의 안정감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한다(장휘숙, 1997; Bowlby, 1988). 애착인물과의 안정된 애착 경험은 정서와 인지를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신과 타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처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Liu, 2006), 자기 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하게 되며(Papini & Roggman, 1992),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게 된다(도현심, 1999; 장휘숙, 1997). 또한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갈 때 안정적인데,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도 잘 적응한다(문은식, 2003). 이처럼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감정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으로 다른 발달적 특성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경우 적응의 문제를 덜 경험하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는 연구(Grotevant & Cooper, 1989) 역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아동기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에 두드러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발달적 과도기에 애착 행동체계가 더욱 활성화 되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지각된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억압하는 정서조절의 문제, 잘못 해석하는 인지과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행동문제를 야기 시킨다(Lopez & Brennan, 2000). Crienden (1995)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품행장애, 주의력장애, 우울, 약물남용,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문경숙(2006)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마저 없다면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박정녀, 최해림, 2005; Elgar, Knight, Worrall & Sherman, 2003; Kerr & Stattin, 2000).

청소년기 애착의 또 다른 특징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많은 시간을 친구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기에는 또래애착 역시 부모애착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16-20세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또래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 및 또래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보고하였다. 청소년에게 또래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친구집단과 어울리므로 직접적으로 충족감을 주어 행복을 느끼게 하므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똑같은 고민과 갈등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죄의식이나 긴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최지

은, 신용주, 2003). 황숙영(2007)은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유지가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만, 반대로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관계가 소원해 질 경우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적대적인 친구관계인 왕따나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도현심, 1999), 자살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하며(김기환 등, 2000),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자살충동과도 관련이 있다(손병덕, 2005).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된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Parker & Asher, 1987; Hartup, 1983). 이처럼 안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지만(Buhrmester, & Furman, 1987; Youniss & Smollar, 1985; Weiss, 1982), 안정적이지 못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다.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하상훈, 2001). 또한 친구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기 안에 갇혀버려 고립된 생각을 하므로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홍나미, 1998). 특히 사회적 지지는 자살충동에 있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가족이나 친구 기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김현준, 2007; 박경, 2005).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도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또래나 가족, 기타 중요한 타인과

의 사회적인 관계가 빈약하고 이들로부터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살 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De Man & Leduc, 1995).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 및 또래애착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인지왜곡과 청소년의 자살

청소년의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사건과 그에 따른 생각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고체계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신념화되면 하나의 고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신념체계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서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주애경, 2003).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인지모델(Cognitive model)은 모든 심리문제에서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가 공통적이며, 이러한 사고는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Beck의 인지이론은 우울증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에 근거한다.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에게 부정적 생활사건을 포함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eck은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을 인지도식(schema)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부딪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고 본다.

Baumeister(1991)는 사고활동이 편협화되고 부정적이고 몰가치적 사고에 만 치우쳐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인지적 몰락’의

영향으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즉 자살은 자기로부터 도피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왜곡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도기로서 그에 따른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많다. 또한 인지적으로는 미성숙하므로 일시적으로 정신적 불균형 혹은 부적응에 처하게 되어,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자살행동을 일으킬만한 촉발 사건을 경험할 때, 청소년이 경험한 촉발사건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기보다는, 촉발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왜곡이나 내적 영향력의 정도가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김기환 등, 2000).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인지왜곡이나 오류들이 생겨나고 그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우울이 유발되기도 한다. 만약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부정적 생각을 하게 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할 위험이 높고, 왜곡된 생각과 우울한 기분에 의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변영주, 1994).

Compas, Davis, Forsythe & Wagner(1987)는 스트레스 사건이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려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일 수 있다. Lazarus & Folkman(1984)도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갖게 하는 공부나 성적에 관련되는 상황이 학생들로 하여금 부적응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평가,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송종화, 2006; 이광희, 2005; 오미향, 1993).

선행연구에서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밝혀냈는데, 전창오(1996)는 인지적인 왜곡이 청소년의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대상의 인지적 집단상담이 자살생각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장은선(2006)은 청소년의 가정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임을 알아내고, 비합리적 신념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자살생각을 줄여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했다.

이와 같이 비합리적 사고, 인지왜곡, 인지오류 등은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으로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 역할을 한다. 또한 삶을 의미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며,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동일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인지왜곡이나 비합리적 사고의 수준이 높을 경우, 불편한 정서가 더 많이 유발되어 우울 혹은 자살생각이 증가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사고의 오류가 발생되어 사고 과정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나타나는 비합리적 사고, 인지오류, 역기능적 사고, 부적응적 사고, 인지적 몰락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인지왜곡’으로 재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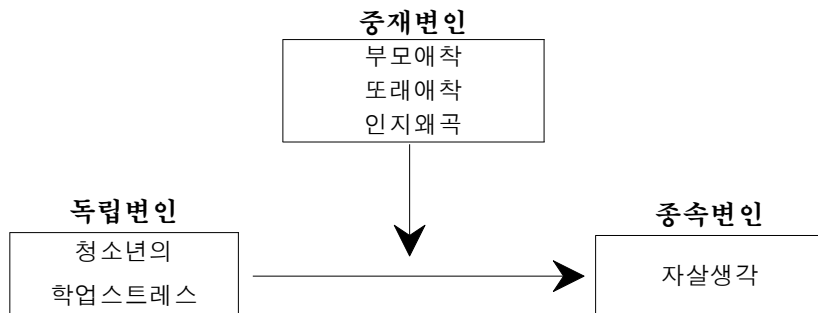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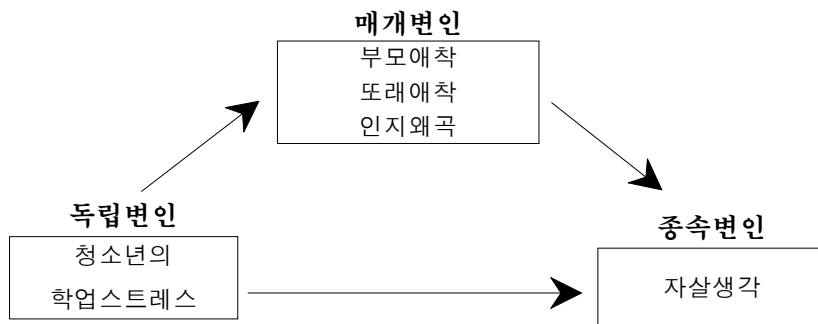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변인들을 각각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모형



<그림 2>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매개모형



2.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7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79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97부를 제외한 58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종교, 친한 친구의 수, 거주형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582명 중 남학생은 263명(45.2%), 여학생은 319명(54.8%)을 차지하였다. 이 중 중학생은 265명(45.5%), 고등학생은 317명(54.4%)이었으며,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582)	%
성별	남	263	45.2
	여	319	54.8
학년	중1	53	9.1
	중2	97	16.7
	중3	115	19.8
	고1	131	22.5
	고2	60	10.3
	고3	126	21.6

학업 성적	상(평균90~100점)	110	18.9
	중상(평균80~90점)	181	31.1
	중(평균70~80점)	144	24.7
	중하(평균60~70점)	89	15.3
	하(평균60점 이하)	54	9.3
	무응답	4	0.7
종교	기독교	186	32.0
	천주교	79	13.6
	불교	48	8.2
	유교	0	0.0
	무교	259	44.5
	기타	10	1.7
친한 친구의 수	전혀 없다	2	0.3
	1~2명	22	3.8
	3~4명	136	23.4
	5~6명	148	25.4
	7명이상	271	46.6
	무응답	3	0.5
거주 형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534	91.8
	부모님과 별거 중이다(자취, 하숙)	1	0.2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7	1.2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28	4.8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	4	0.7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다	0	0.0
기타	8	1.4	

	농업/임업/어업	2	0.3
	소규모 자영업(가게, 식당 등)	88	15.1
	중규모 이상 사업가	50	8.6
	생산직/ 기술직	43	7.4
	사무직(회사원 등)	199	34.2
아버지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	68	11.7
직업	전문직(교수, 의사, 약사, 연구원 등)	49	8.4
	관리직(대기업 부장급 이상)	17	2.9
	피 고용직(영업, 기사, 판매직)	29	5.0
	무직, 가사(전업주부)	7	1.2
	기타	16	2.7
	무응답	14	2.4
	농업/임업/어업	1	0.2
	소규모 자영업(가게, 식당 등)	74	12.7
	중규모 이상 사업가	9	1.5
	생산직/ 기술직	12	2.1
	사무직(회사원 등)	79	13.6
어머니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	43	7.4
직업	전문직(교수, 의사, 약사, 연구원 등)	41	7.0
	관리직(대기업 부장급 이상)	0	0.0
	피 고용직(영업, 기사, 판매직)	27	4.6
	무직, 가사(전업주부)	257	44.2
	기타	26	4.5
	무응답	13	2.2

3. 측정도구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rason, Johnson & Siegel(1978), Lewis, Siegel & Lewis(1984), Compas, Davis, Forsythe & Wagner(1987), 원호택, 김순화(1985), 최해림(1986)의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오미향(1993)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부 학업 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척도 75문항과, 2부 학업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의 75문항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8개 하위요인을 채택,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현 교육제도와 관련 없는 문항과 중복문항 삭제) 5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 거의 받지 않는다 ~ 5점 : 매우 많이 받는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심함을 나타낸다.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다.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표 2>과 같다.

<표 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성적	1,8,15,22,30,36,42	7
시험	2,9,16,23,31,37,43,55	8
수업	10,24,32,38,44,47,52	7
공부	3,11,17,25,33,39,45,48,50	9
진로	4,18,26,34,40,53,54	7
교사관계	5,12,19,27,35,56	6
가족관계	6,13,20,28	4
친구관계	7,14,21,29,41,46,49,51	8
전체	56문항	

2) 자살생각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Beck의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 Beck et al, 1979)를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검사로, 박광배와 신민섭(1991)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 시켰다. 총 19문항을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 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뢰감(trust), 소외감(alienation)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원척도에서 제시된 하위요인이 불명확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요인 분석 결과 역시 일치하지 않아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총점으로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PA와 같이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됨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 애착 .93, 어머니 애착 .92, 또래애착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애착 신뢰도는 .93이었고, 또래애착 신뢰도는 .88이었다.

4) 인지왜곡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윤(2007)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 척도(Maladaptive Thought Scale: MT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문제에 관련되는 부적응적 사고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외부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인지왜곡현상, 즉 논리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정보처리과정을 반영하는 인지왜곡을 측정하며, 9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정윤(2007)은 2차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 과대평가를 내면화문제관련 부적응적 사고로, 낮은 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을 외면화문제관련 부적응적 사고로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왜곡이 심함을 나타낸다. 부적응적 사고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임의결론내리기	1,10,19,28,35	5
자기비하	2,11,20,29,36,40,42	7
문제행동 과소평가	3,12,21,30,37	5
자기중심화	4,13,22,31	4
완벽과 인정추구	5,14,23,32,38,41,43,44	8
자기비난	6,15,24,33,39	5
타인비난	7,16,25	3
낮은 인내력	8,17,26,34	4
부정경험 과대평가	9,18,27	3
전 체	44문항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변인(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애착,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의 관계($r=-.029, p=n.s$)를 제외한 각 변인은 $p<.001$ 수준에서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왜곡이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r=.398, p<.001$)을 보였고, 학업스트레스 또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왜곡의 수준이 심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경우에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상관관계

변인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
자살생각	1				
학업스트레스	.264***	1			
부모애착	-.384***	-.176***	1		
또래애착	-.228***	-.029	.310***	1	
인지왜곡	.398***	.451***	-.310***	-.276***	1

*** $p<.001$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지므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 교사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공부관련 스트레스(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라고한다 등), 가족관계 관련스트레스(공부하라고 가족들이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 자매와 공부를 비교하거나 공부로 차별 한다 등), 친구관계관련 스트레스(공부만 한다고 친구들이 멀리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자랑하거나 빼킨다 등)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공부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표준화계수)	t	R^2	F
성적	.039	.609		
시험	.057	.872		
수업	-.023	-.378		
공부	.252	3.972***	.117	9.493***
진로	.071	1.191		
교사관계	-.034	-.539		
가족관계	.128	2.432*		
친구관계	-.137	-2.367*		

* $p < .05$ *** $p < .001$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진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을 검증할 때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점수에서 각 변인의 평균을 뺀 편차점수를 만들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중심화(Zero-cente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를, 2단계에서는 중재변인으로 가정한 변인을 투입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1) 부모애착의 중재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의 학업스트레스($F=43.510$, $p<.001$)와 2단계의 부모애착($F=83.779$, $p<.001$)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설명을 나타냈지만, 3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411$, $p=.522$).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학업스트레스	.264***	.070	.070	43.510***
2	부모애착	-.348***	.187	.118	83.779***
3	학업스트레스 × 부모애착	-.024	.188	.001	.411

*** $p < .001$

$^4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4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2) 또래애착의 중재효과

또래애착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를, 2단계에서 또래애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4F = 43.510$, $p < .001$)와 또래애착($^4F = 32.069$, $p < .001$)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났지만,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했을 때는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F = .005$, $p = .944$).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또래애착의 중재효과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학업스트레스	.264***	.070	.070	43.510***
2	또래애착	-.221***	.119	.049	32.069***
3	학업스트레스 × 또래애착	-.003	.119	.000	.005

*** $p < .001$

3)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인지왜곡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를, 2단계에서 인지왜곡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4F = 43.510$, $p < .001$)와 인지왜곡($^4F = 67.840$, $p < .001$)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학업스트레스와 인지왜곡의 상호작용변인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F = .126$, $p = .723$). 이는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을 중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중재효과

단계	변인	β	R^2	$^4R^2$	4F
1	학업스트레스	.264***	.070	.070	43.510***
2	인지왜곡	.350***	.167	.098	67.840***
3	학업스트레스 × 인지왜곡	.014	.168	.000	.126

*** $p < .001$

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인지 왜곡의 매개효과

자살생각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 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이 전제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 한 후에 그 효과(β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또래애착의 관계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r=-.029, p=n.s$)으로 밝혀짐으로서 <표 4 참고>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및 인지 왜곡의 매개효과만을 알아보았다.

1)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4 참고>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부모애착과 자살생각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부모애착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한 후에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부모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eta = -.176,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64,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48, p < .001$),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보다($\beta = .264,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203, p < .001$). 그러므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9>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학업스트레스→부모애착	-.176***	.031	18.621***
2 독립→중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264***	.070	43.510***
3 독립→중속 매개→중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부모애착→자살생각	.203*** -.348***	.118	83.779***

*** $p < .001$

2)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인지왜곡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451$,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64$,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350$,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106$, $p < .05$). 그러므로 인지왜곡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학업스트레스→인지왜곡	.451***	.203	148.149***
2	독립→종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264***	.070	43.510***
3	독립→종속 매개→종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인지왜곡→자살생각	.106* .350***	.098	67.840***

* $p < .05$ *** $p < .001$

인지왜곡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과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에 따른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r=.353, p<.001$)과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r=.275, p<.001$)의 관계가 유의미하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r=.264, p<.001$),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r=.481, p<.001$)과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r=.218, p<.001$)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Baron & Kenny(1986)의 검증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과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11> 자살생각, 내면화문제관련/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1	2	3	4
1 자살생각	1			
2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	.481***	1		
3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	.218***	.310***	1	
4 학업스트레스	.264***	.353***	.275***	1

*** $p < .001$

①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 = .353,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64,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43,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 = .108, p < .01$). 그러므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매개하여 자살생각 이르는 영향력이 17.2%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매개하지 않았을 때 보다 2배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학업스트레스→내면화문제관련	.353***	.124	82.399***
2 독립→종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264***	.070	43.510***
3	독립→종속	.108**	.172	130.964***
	매개→종속	.443***		

** $p < .01$ *** $p < .001$

②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275,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64, p < .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158, p < .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 = .221, p < .001$). 그러므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을 매개하여 자살생각 이르는 영향력은 2.3%로 나타났다.

<표 13>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4R^2$	4F
1 독립→매개	학업스트레스→외현화문제관련	.275***	.076	47.410***
2 독립→중속	학업스트레스→자살생각	.264***	.070	43.510***
3	독립→중속	.221***	.023	14.687***
	매개→중속	.158***		

*** $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갖는 중재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을 설명하고자 실시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의 상관 연구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을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인 자살생각,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 및 인지왜곡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인지왜곡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자살생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업스트레스의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공부관련 스트레스, 가족관계 관련스트레스, 친구관계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이 중 공부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관련 스트레스에는 공부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압박, 공부 분량에 대한 부담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공부는

잘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나, 자신의 생각만큼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생각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허진석, 2007; 문경숙, 2006),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김현준, 2007, 박경, 2005)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중재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을 중재변인으로 가정하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중재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매우 신빙성이 있었으므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처 신념이 효과적인 완충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중재효과가 없다는 것은 애착 및 인지왜곡이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학업스트레스 자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절대적 이어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학업스트레스의 효과가 애착 및 인지왜곡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하게 중재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검증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종속변인의 척도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광배, 1994). 종속변인이 가능한 많은 값을 가지는 연속척도일수록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인의 변량비율이 증가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의 척도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3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유무나 심각성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지만, 종속변인 측정치인 3개 점수 중 하나로 자료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3점 척도의 사용으로 인해 진실로 존재하는 정보의 상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상호작용효과가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Russell, Pinto & Bobko(1991)의 연구에서도 종속변인의 측정과정에서 잠재적인 속성에 대한 많은 정보가 상실되면 실제 잠재속성들 사이에서 높은 상호작용이 존재하더라도 측정된 자료의 비정교성에 의해서 상호작용효과가 약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이 가능한 많은 값을 가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박광배, 1994).

넷째, 자살생각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먼저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안정한 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마저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문경숙,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가족지지가 자살생각을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일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며,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허진석, 2007; 이지연, 2005; 이은숙, 2002)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했지만,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또래애착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스트레스와 친구애착은 서로 무관한 변인이라는 연구(문경숙, 2006)와 같은 결과이며, 친구 지지는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영주, 정영숙, 2007)는 연구결과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경숙(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또래애착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지만 또래애착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변인인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지왜곡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정영주 등, 2007)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업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인지왜곡을 심화시켜, 이것이 결국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부분매개 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인지왜곡의 하위요인 중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과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들 모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정도는 17.2%,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정도는 2.3%를 나타내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이 외현화문제관련 인지왜곡보다 자살생각을 매개하는데 7배 이상 더 큰 설명력이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내면화문제관련 인지왜곡 즉, 자기비하, 자기비난, 부정경험과대평가의 요인과 관련된 인지왜곡에 초점을 두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 인지치료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교차 타당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I(자살생각척도)는 자살생각의 유무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나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이 응답하기에 제한적인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보고 형식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살생각의 유무와 그 정도를 좀 더 단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측정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려는 경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면접연구나 질적연구를 통해 자기보고 형식의 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관계에 있어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인지왜곡만을 다루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이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예측요인인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부모애착, 인지왜곡에 초점을 두어 상담할 경우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 포함된 인지적 변인을 내면화-외현화 문제관련 인지왜곡으로 세분화하여 그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인지왜곡의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경미(2007).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및 증상분석**.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도원(2001). 사춘기의 블랙홀 청소년 우울증. 서울: 주간동아.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조한익(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 김기환, 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현준(200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간의 관계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17.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문은식(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41(3), 349-369.
- 박경(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 박광배(1994). 너무 작은 설명변량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 :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20.
- 박광배, 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광배, 신민섭(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

- 지: **임상**, 9(1), 20-32.
- 박은영(1995).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 기독교, 비기독교 고등학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녀, 최해림(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변영주(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덕(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송중화(2006).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낙관성 및 비관성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양승연(2004).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김순화(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20(1). 43-50.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오미향(1993).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 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근(2006). **청소년의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의**

-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림, 윤진(1993).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6(1), 107-120.
- 윤혜미, 남영옥(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3, 127-153.
- 이광희(200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의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경진, 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백지은(2004).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연구**, 9(3), 149-168.
- 이정윤(2007).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 척도의 개발 및 예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01-1021.
- 이지연(2005).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숙빈, 정철순(2002).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2), 254-264.
- 임영식, 오세진(1999). 청소년 자살과 예방.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2(1), 141-158.
- 장은선(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 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지(2004). **일 도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주보건소. 청소년 자살충동 조사: **동아일보 2003년 1월 24일.**
- 전창오(1996). **인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감소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두완(1997). **스트레스대처훈련이 남고생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주, 정영숙(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은주(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애경(2003).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청소년백서(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 최지은,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99-210.
- 최혜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7). **사망원인통계연보.**
- 하상훈(2001).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5-16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 건강면접 및 보건 의식 부문. 질병관리본부[공편].
- 허진석(2007). 학교 유형과 심리적 환경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나미(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 황숙영(2007).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41, 3-29.
- Ainsworth, M. D. S. (1982). In C. M. Parkes. & K.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1991).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ck, A. T. & Weishaar, M. E. (1989). *Cognitive therapy,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In Freeman, A, Simon, K M, Beutler, L E, Arkowitz, H, Comprehensive Handbook of Cognitive Therapy New York & London Plenum Press.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ohen, Y., Spirito, A. & Brown, L. K. (1996).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R. J. Diclemente., W. B. Hansen., & L. E. Ponton(Eds.). *Hanbook of adolescent risk behavior*. 193-224. Plenum Press.
- Compas, B. E., Davis, G. E., Forsythe, C. J. & Wagner, B. M. (1987). Assessment of Major and Daily Stressful Events During Adolescent perceived Event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4), 535-541.
- Crittenden P. (1995).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ttachment Theory. Ed by Goldberg S, Muir R, Kerr J. New York. *The Analytic Press*, 367-406.
- De Man, A. F. & Leduc, C. P. (1995). Suicidal ideation in high school

- students: Depression and other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173-180.
- Elgar, F. J., Knight, J., Worrall, G. J. & Sherman, G. (2003). Attachme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ural problems in rural and urban juvenile delinqu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4*(1), 35-48.
- Freeman, H. & Brown, B. B. (2000).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9).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identif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25-438.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Haugaard, J. J. (2001). *Problematic behavior During Adolescence*. McGraw-Hill.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as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u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wis, C. E., Siegel, J. M. & Lewis, M. A. (1984) Feeling bad :

- Exploring Sources of Distres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117-122.
- Lewinsohn, P. M., Clarke, G. N., Rohde, P., Hops, H. & Seeley, J. R. (1996). In Hibbs, E. D. & Jensen, P. S.(Eds.),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 Empirically based strategies for clinical practice*, 109-136. Washington, DC : APA.
- Liu,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apoport, J. (1977). *Community Psychology Values*, *Research and 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Inc.
- Russell, C. J., Pinto, J. K. & Bobko, P. (1991). Appropriate moderated regression and inappropriate research strategy: A demonstration

- of information loss due to scale coarsenes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5, 125-135.
- Sarason, I., Johnson, J., & Siegel, J.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Changes :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932-946.
- Sifnoes, P. E. (1960). A concept of emotional crisis *Mental Hygiene*, 44, 177-185.
- Simon, R. L. & Murphy, P. (199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Wichstrom, L. (2000). Predictor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603-610.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ce' relationship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ttachm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Lee, Ji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582 students recruited from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Academic Stress Scale,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IPPA-R) and Maladaptive Thoughts Scale for adolescents(MTS-A)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cognitive distortions, while i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Second, the students who have high academic stress think more about the suicidal ideation. Some subcategories of academic stress(study, family and friends stress) also showed an effec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were not too significant.

Fourth, the parents attachment and cognitive distortion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internalizing (self-blame, self-debasing, maximizing negative experiences) and externalizing (low tolerance, self-serving, other-blame) problems- specific cognitive distortion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ing problems- specific cognitive distortions on suicide ideation was 7 times stronger than the externalizing problems- specific cognitive distortion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stress, Suicidal Ideation,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Cognitive Distorti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학업스트레스 척도

부록 2. 자살생각 척도

부록 3. 인지왜곡 척도

부록 4. 부모애착 척도

부록 5. 또래애착 척도

설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또한 좋은 답과 나쁜 답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본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 연구실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자 이 지 현

※ 본 조사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학생들이 흔히 학교 공부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 또는 장면입니다. 한 문장씩 차례로 읽어 가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나 장면에서 평소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정도를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장면 문 항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거의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보통 이다	많이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1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2	시험 과목수가 많거나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1	2	3	4	5
3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가 싫다.	1	2	3	4	5
4	성적이 나빠서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 할 수 없다.	1	2	3	4	5
5	선생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6	공부하라고 가족(부모, 형제, 자매)이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한다.	1	2	3	4	5
7	공부만 한다고 친구들이 멀리한다.	1	2	3	4	5
8	부모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1	2	3	4	5
9	시험을 자주 본다.	1	2	3	4	5
10	수업 시간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다.	1	2	3	4	5
11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1	2	3	4	5
12	선생님이 편애나 차별 대우를 한다.	1	2	3	4	5
13	가족 중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상대가 없다.	1	2	3	4	5
14	성적이 좋지 않다고 친구들이 무시한다.	1	2	3	4	5
15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중이나 벌을 받는다.	1	2	3	4	5
16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	1	2	3	4	5

번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장면 문항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거의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보통 이다	많이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17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하라고 한다.	1	2	3	4	5
18	자신이 원하는 진로(학교, 직업)와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가 다르다.	1	2	3	4	5
19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1	2	3	4	5
20	부모님이 나의 성적이나 공부에 무관심하다.	1	2	3	4	5
21	성적 때문에 친구와 경쟁한다.	1	2	3	4	5
22	친구들 앞에서 시험 점수가 공개된다.	1	2	3	4	5
23	내가 공부한 것과는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1	2	3	4	5
24	수업시간에 졸음이 온다.	1	2	3	4	5
25	각 과목에 따라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른다.	1	2	3	4	5
26	진로에 대해 의논할 상대가 없다.	1	2	3	4	5
27	선생님에게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벌을 받는다.	1	2	3	4	5
28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와 공부를 비교하거나 공부로 차별한다.	1	2	3	4	5
29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한다.	1	2	3	4	5
30	성적표를 받는다.	1	2	3	4	5
31	시험 문제가 어렵다.	1	2	3	4	5
32	하루 수업시간이 많다.	1	2	3	4	5
33	공부 이외의 일(써클활동, 종교활동, 예.체능 활동)에 시간을 빼앗긴다.	1	2	3	4	5
34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	2	3	4	5
35	선생님께서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신다.	1	2	3	4	5
36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과 비교한다.	1	2	3	4	5

번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장면 문항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거의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보통 이다	많이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37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모자란다.	1	2	3	4	5
38	수업시간 중에 질문이나 지적을 받는다.	1	2	3	4	5
39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1	2	3	4	5
40	진학할 것인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 망설여진다.	1	2	3	4	5
41	친구와 싸워서 공부가 잘 안된다.	1	2	3	4	5
42	성적이 떨어진다.	1	2	3	4	5
43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분명히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1	2	3	4	5
44	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1	2	3	4	5
45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1	2	3	4	5
46	경쟁자가 나 보다 성적을 더 잘 받았다.	1	2	3	4	5
47	수업시간에 친구가 장난이나 말을 건다.	1	2	3	4	5
48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	2	3	4	5
49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랑하거나 빠긴다.	1	2	3	4	5
50	공부하는 도중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1	2	3	4	5
51	이성 친구로 인해 공부가 방해된다.	1	2	3	4	5
52	선생님께서 성의 없이 가르친다.	1	2	3	4	5
53	가정형편으로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없다.	1	2	3	4	5
54	능력이 부족하여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1	2	3	4	5
55	쉽거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린다.	1	2	3	4	5
56	선생님이 무섭거나 엄격하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 안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 정말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사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정말 그렇다.
3. 여러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살아 있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 살아 있는 거나 죽는 것이나 그저 비슷비슷하다.
()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
4. 여러분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 전혀 없다.
() 약간 희망하고 있다.
() 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 한다.
5.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특별히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6. 여러분에게 일단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 잠깐 생각났다가 금방 잊어버린다.
()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이 지속 된다.
()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7. 여러분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곤한다.
() 거의 항상 그런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

8. 자살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그런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9. 여러분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통제 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통제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0. 여러분이 실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예: 가족, 친구, 종교,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 등)이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주변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살 시도를 망설일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주변의 환경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
11. 여러분이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현실에서 도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input type="checkbox"/> 현실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 해결/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12. 자살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살 시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자살시도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 보았다.
13.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자살을 시도했으면'하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14. 여러분은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완전하진 않지만 있다(예: 약을 사 모으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하게 준비했다(예: 죽기에 충분한 약을 사 모았다).
15. 여러분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실제로 자살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실제로 자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실제로 자살 할 수 있다.
16. 자살시도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사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별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생각한 방법은 시간,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내가 생각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7. 여러분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를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글'이나 이와 비슷한 글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시작했다가 그만 두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하게 써 본적이 있다.
18.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생각만 해 봤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19. 여러분은 '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 한다. <input type="checkbox"/>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두곤 한다. <input type="checkbox"/> 남이 알아챌까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혹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평소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의 일부 문항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있다고 가정하시고 그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하셔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인사를 해도 상대가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2	나는 무능력하다.	1	2	3	4	5
3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도 들키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한다.	1	2	3	4	5
5	나는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일이 잘 못 되면 내 탓인 것 같다.	1	2	3	4	5
7	내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1	2	3	4	5
8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그것을 참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만약 내가 한 가지 운동을 잘 못한다면 다른 운동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자신이 싫다.	1	2	3	4	5
12	가게 주인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건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	1	2	3	4	5
13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2	3	4	5
15	운동시합에서 우리 팀이 진 경우에 그것이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6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면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18	전에 실패했던 일은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1	2	3	4	5
19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1	2	3	4	5
21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설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	2	3	4	5
24	어떤 일로 누군가가 갑자기 화를 내면 그것이 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26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친구와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도 그 친구와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다.	1	2	3	4	5
30	모든 사람은 법을 어기므로, 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2	3	4	5
33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을 책망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그대로 참아서는 안된다.	1	2	3	4	5
35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음을 뜻한다.	1	2	3	4	5
36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1	2	3	4	5
37	돈이 많은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갚지 않아도 괜찮다.	1	2	3	4	5
38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9	나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다.	1	2	3	4	5
40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	1	2	3	4	5
4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1	2	3	4	5
42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43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44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부모님처럼 들봐주신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부모님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본분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나의 마음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지금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2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린다.	1	2	3	4	5
3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1	2	3	4	5
4	친구들과 함께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내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6	나의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만나고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1	2	3	4	5
10	내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11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1	2	3	4	5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내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 준다.	1	2	3	4	5
18	나는 내 친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내 친구들을 신뢰한다.	1	2	3	4	5
21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23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1	2	3	4	5
24	나는 나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25	만약 내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하거나, 해당사항의 번호를 써 주세요.

1. 성별을 표시해 주세요.

- ① 남() ② 여()

2. 현재 몇 학년인지 표시해 주세요.

-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3. 여러분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상(평균90~100점) ② 중상(평균80~90점) ③ 중(평균70~80점)
④ 중하(평균60~70점) ⑤ 하(평균60점 이하)

4. 여러분의 종교는? ()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유교 ⑤ 무교 ⑥ 기타

5.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

- ① 전혀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6명 ⑤ 7명이상

6. 현재 가족 사항은? ()

- 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 ② 부모님과 별거 중이다(자취, 하숙)
③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④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⑤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
⑥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다. ⑦ 기타 _____

7.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부모님의 직업을 골라 번호를 적으세요.

- 1) 아버지() 2) 어머니()

- | | |
|-------------------------------|---------------------|
| ① 농업/임업/어업 | ② 소규모 자영업(가게, 식당 등) |
| ③ 중규모 이상 사업가 | ④ 생산직/ 기술직 |
| ⑤ 사무직(회사원 등) | ⑥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 |
| ⑦ 전문직(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연구원 등) | ⑧ 관리직(대기업 부장급 이상) |
| ⑨ 피 고용직(영업, 기사, 판매직) | ⑩ 무직, 가사(전업주부) |
| ⑪ 기타 _____ |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